

防風通聖散에 대한 方劑學적 研究

이주희¹, 윤용갑^{2,3}

¹만보당한의원, ²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³한국전통의학연구소

ABSTRACT

Herbal Prescriptional Study of *Bangpungtongsungsan*

Ju-Hee Lee¹, Young-Gab Yun^{2,3}

¹Manbodang Oriental Clinic, ²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Wonkwang University

³Rese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rom the Herbal Prescriptional Study of *Bangpungtongsungsan*(防風通聖散, BPTS). It can be concluded as follows.

1. The origin of BPTS is the book of *sunmyungronbang*(宣明論方) in 1172. BPTS' hebal compositions are not changed in history, but it's doses had been changed. When BPTS are written to *donguibogam*(東醫寶鑑) in 1610, that's doses are added 0.75g to each herbs dose according to the korean people's constitution.

2. BPTS are composed of five elemental prescriptions. that are *yugilsan*(六一散), *bakhotang*(白虎湯), *hoechunyanggyeoksan*(回春涼膈散), *jowiseunggitang*(調胃承氣湯) and *saengryosamultang*(生料四物湯), and three subsidiary prescriptions and some herbs have collateral effects in BPTS.

3. BPTS can cure some diseases that are cause by fever with wind, heat in gastrointestinal tract, anemia after childbirth, heat that is caused by kidney's disease, hemorrhoids, alcoholic

-
- 교신저자 : 윤용갑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Tel : 063-850-6834 Fax : 063-856-5056 E-mail : yunyg@wonkwang.ac.kr
 - 접수 : 2010/ 03/ 17 수정 : 2010/ 06/ 07 채택 : 2010/ 06/ 12

poisoning, contusion and constipation that are caused by intestinal heat.

4. BPTS can cure hypertension, hyperlipidemia and Obesity also.

Key word : Bangpungtongsungsan, Herbal Prescriptional Study, dongeuibogam

1. 緒 論

防風通聖散¹⁾은 金代 劉完素의 『黃帝內經宣明論方』²⁾에 처음 등재한 處方으로서 風에 의한 제반 증상, 특히 風熱로 인한 증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立方되었다. 제자인 張元素³⁾도 劉完素의 생각을 이어 받아 『宣明論方』의 主治를 제시했으며 이에 더불어 痰에 의한 증상을 중요시하게 다루었다.

朱丹溪는 劉完素와 학파는 비록 달랐으나 防風通聖散의 효능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丹溪學派의 醫論이 『丹溪心法附餘』⁵⁾와 『醫學正傳』⁶⁾을 거쳐 『醫學入門』⁸⁾에서 기재될 때 防風通聖散이 風熱로 인한 제반 증상을 치유하는 중요한 처방으로 인식되었다.

『東醫寶鑑』에서는 頭, 眼, 鼻, 咽喉, 皮, 毛髮, 風, 寒, 燥, 火, 內傷, 溫疫, 癰疽, 諸瘡 그리고 小兒등의 16개 門에서 34회나 인용하여 사용하는 등 防風通聖散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風門에서는 8회 그리고 諸瘡門에서는 7회나 인용하여 그 영역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⁹⁾.

防風通聖散에서 防風이란 風 혹은 風熱로 인한 諸般 疾患을 豫防한다는 뜻이며 通聖이란 그 효능이 좋아 通靈如聖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雙解如通聖 즉, 表裏와 三焦俱實을 같이 풀어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즉, 風 혹은 風熱로 인해 발

생하는 表裏俱實의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 좋은 처방이란 뜻이다. 여기서 風이 風熱 뿐만 아니라 中風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현대에는 中風과 관련되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 風이 熱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熱 혹은 火와 관련된 병리에도 많은 활용이 있다^{8,10)}.

최근의 防風通聖散의 연구를 보면 中風 혹은 高血壓에 관련된 연구로, 강¹⁹⁾의 “防風通聖散加味の 高血壓 高脂血症에 대한 연구”등과 같이 中風의 원인이 되는 高血壓과 高脂血症에 대한 防風通聖散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熱 혹은 燥에 관련된 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김²³⁾의 “알려지성 비염 병태 모델에 대한 防風通聖散의 항알러지 효과”와 같은 알러지성 질환이나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도 防風通聖散의 활용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22,23,24,25,29)}.

『東醫寶鑑』에서는 主治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신²⁶⁾의 “防風通聖散이 白鼠의 肥滿症 및 肥滿細胞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²⁸⁾의 “防風通聖散 추출물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의 Cytokine 및 NO 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등과 같이 肥滿이나 細胞 保護 등 기존에 연구되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에서 防風通聖散의 활용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防風通聖散에 대한 方劑學的 견지에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바, 構成藥物의 변화와 主治변화, 構成하고 있는 處方內容을 基本方으

로 분석하고, 方劑構成과 病理의 연관성, 主治작용과 構成方劑에서 상호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防風通聖散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실하게 확립하고 이에 대한 臨床의 활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본 研究를 시도하였다.

II. 本 論

1. 防風通聖散의 構成의 變化

防風通聖散은 『宣明論方(1172, 劉完素)』²⁾의 風門에 처음 수록된 處方으로 구성내용은 滑石(三兩) 甘草 2兩 石膏 黃芩, 桔梗(各 一兩) 防風, 川芎, 當歸, 赤芍,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各 五錢) 荊芥, 白朮, 山梔(各 一分) 生薑 三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東醫寶鑑』의 防風通聖散과는 약물의 구성은 변화가 없으나, 약물의 용량과 사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東醫寶鑑(1610, 許浚)』의 防風通聖散은 『醫學入門(1575, 李梴)』에서 인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東醫寶鑑』의 防風通聖散과 『醫學入門』의 防風通聖散과 약물 구성은 같으나 약물 용량은 『醫學入門』의 용량에 각 2分씩을 더하고 生薑을 3片中에서 5片으로 바꾼 차이가 있다. 이는 『東醫寶鑑』을 著述하면서 각 處方을 인용할 때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도록 용량을 조절한 때문으로 보인다. 『醫學入門』에서 인용된 防風通聖散은 『丹溪心法附餘(1536, 方廣)』 혹은 『醫學綱目(1565, 樓英)』⁷⁾에 수록된 防風通聖散을 20분의 1로 나누어 한첩에 사용하는 분량으로 바꾸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丹溪心法附餘』와 『醫學綱目』에는 甘草의 용량이 처방구성에는 1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시 『丹溪心法附餘』의 歌訣에서 2兩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⁸⁾. 『醫學綱目』에서 기재한 防風通聖散은 『保命集(1186, 劉完素)』³⁾에서 인용하였다고 적고 있다. 『保命集』은 劉完素가 지은 저서로 알려져 있었으나,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다소 후대에 劉完素와 張元素

두 醫家の 醫論을 모두 익힌 후인이 서로의 장점을 모아 새로이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되었다¹⁷⁾. 『保命集』의 原序를 참조로 한다면 1251년 楊威에 의해 발견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防風通聖散의 첫 출전은 『宣明論方』이고 劉完素의 제자인 張從正의 『儒門事親』⁴⁾에 다시 『宣明論方』에서 인용한다고 기재된 防風通聖散이 나오는데, 두 醫書에 실린 防風通聖散은 『保命集』에 수록된 防風通聖散의 용량과는 달리 『宣明論方』에는 荊芥, 白朮, 梔子의 양이 1分으로 기재되어 있고, 『儒門事親』에는 滑石의 양이 3錢, 石膏, 黃芩, 桔梗의 양이 2兩 그리고 荊芥, 白朮, 梔子의 양이 1兩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같지 않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세 醫書에 기록된 내용임에도 차이가 큰데다가 兩, 錢, 分과 같은 단위를 제외하면 일관성이 있고, 『儒門事親』의 경우 같은 2兩임에도 甘草와 石膏, 黃芩, 桔梗이 따로記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原方의 용량은 현재 사용되는 용량의 기초가 되는 『保命集』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대에 筆寫나 출판과정에서의 誤字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출전에 따른 藥物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宣明論方 滑石(三兩) 甘草(二兩) 石膏 黃芩 桔梗(一兩) 防風 川芎 當歸 赤芍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半兩) 荊芥 白朮 山梔(一分) 爲末 每服二錢 薑三片 溫服

儒門事親 滑石(三錢) 甘草(二兩) 石膏 黃芩 桔梗(二兩) 防風 川芎 當歸 赤芍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半兩) 荊芥 白朮 山梔(1兩) 爲粗末 每服五,七錢 薑三片 溫服

保命集 滑石(三兩) 甘草(二兩) 石膏 黃芩 桔梗(一兩) 防風 川芎 當歸 芍藥 大黃 芒硝 連翹 薄荷 麻黃(半兩) 白朮 山梔子 荊芥穗(二錢半) 爲粗末 每服一兩 生薑同煎 溫服

丹溪心法附餘 滑石(三兩) 甘草(二兩) 桔梗 黃芩 石膏(一兩) 防風 川芎 當歸 芍藥 大黃 芒硝 連

翹 薄荷 麻黃 (五錢) 白朮 山梔 荊芥穗 (二錢半)
爲粗末 每服三錢 生薑同煎 溫服

醫學入門 滑石(一錢半) 甘草(一錢) 石膏 黃芩
桔梗(五分) 防風 川芎 當歸 赤芍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二分半) 荊芥 白朮 山梔(一分半) 薑三

片 水煎溫服

東醫寶鑑 滑石(一錢七分) 甘草(一錢二分) 石膏
黃芩 桔梗(七分) 防風 川芎 當歸 赤芍藥 大黃 麻
黃 薄荷 連翹 芒硝(四分半) 荊芥 白朮 梔子(三分
半) 薑五片 水煎服

Table 1. 防風通聖散의 方劑構成藥物에 대한 비교(단위 錢)

構成藥物	宣明論方 (1172년)	儒門事親 (12세기)	保命集 (1186년)	丹溪心法附餘 (1536년)	醫學入門 (1575년)	東醫寶鑑 (1610년)
滑石	30	3	30	30	1.5	1.7
甘草	20	20	20	20	1	1.2
石膏	10	20	10	10	0.5	0.7
黃芩	10	20	10	10	0.5	0.7
桔梗	10	20	10	10	0.5	0.7
防風	5	5	5	5	0.25	0.45
川芎	5	5	5	5	0.25	0.45
當歸	5	5	5	5	0.25	0.45
赤芍	5	5	5	5	0.25	0.45
大黃	5	5	5	5	0.25	0.45
麻黃	5	5	5	5	0.25	0.45
薄荷	5	5	5	5	0.25	0.45
連翹	5	5	5	5	0.25	0.45
芒硝	5	5	5	5	0.25	0.45
荊芥	0.1	10	2.5	2.5	0.15	0.35
白朮	0.1	10	2.5	2.5	0.15	0.35
梔子	0.1	10	2.5	2.5	0.15	0.35
生薑	3	3	生薑同煎	3	3	5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宣明論方』에서 『東醫寶鑑』에 이르기까지 防風通聖散을 이루는 약물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고 用量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醫學綱目』 시기(1565년)까지 대량의 약재를 사용하여 散劑로 만들어 나누어 복용하던 것을 『醫學入門』에 이르러 한첩 단위로 나누어 달여서 복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醫學入門』의 처방을 『東醫寶鑑』에서 引用할 때 『醫學入門』에서 사용한 약물 用量에 각각 2分을 더하고 生薑을 5片으로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2. 防風通聖散 構成에 관련된 基本方

防風通聖散의 主治나 效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처방구성이 어떤 종류의 基本方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東醫寶鑑』에 등재되어 있는 防風通聖散의 구성약물을 통하여 그 관련 처방을 분석하여 보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滑石, 甘草로 이루어져 濕熱을 제거하고 健脾 시키는 益元散(六一散), 石膏, 甘草로 이루어져 中焦의 熱을 제거하는 白虎湯, 薄荷, 甘草, 桔梗, 連翹, 梔子, 大黃, 芒硝, 黃芩으로 이루어져 熱毒 특히 上焦의 熱毒을 제거하는 涼膈散, 大黃, 芒硝,

甘草로 이루어져 胃中燥熱을 제거하고 瀉下시키는 調胃承氣湯 그리고 當歸, 川芎, 芍藥으로 구성되어 補血하는 四物湯등 5개 처방이 그 기본 구성을 하고 있다.

또, 咽喉腫痛을 치료하는 桔梗, 甘草, 荊芥, 防風, 薄荷, 黃芩로 이루어진 必用方甘桔湯, 咽喉失音を 치료하는 甘草, 桔梗, 荊芥로 이루어진 荊芥湯 그리고 風熱眩暈에 사용하는 荊芥, 大黃, 防風로 이루어진 荊黃湯등의 처방들이 諸般症狀을 치료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麻黃, 防風, 荊芥는 發散之劑로서 風熱을 發散을 통해 치유하고, 攻下之劑의 사용으로 손상될 수 있는 脾氣는 白朮을 넣어서 中氣의 과다한 손상을 미리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몇몇 基本方은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基本方을 다소 변화시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涼膈散은 熱로 인한 燥症도 같이 치료할 목적으로 當歸, 芍藥을 加하여 回春涼膈散으로 변화시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四物湯은 血虛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熱症도 같이 치료하기 위해 黃芩, 薄荷, 防風을 加하여 生料四物湯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防風通聖散은 益元散, 白虎湯, 回春涼膈散, 調胃承氣湯, 生料四物湯등 5개의 基本方이 처방의 뼈대를 이루고, 必用方甘桔湯, 荊芥湯, 荊黃湯등 증상에 대한 처방과 麻黃, 防風, 荊芥등의 發散之劑와 脾氣를 손상되지 않게 도와주는 白朮이 防風通聖散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14)}.

Table 2. 防風通聖散 구성에 관련된 기본방

構成藥物	基本方	基本方 構成藥物	效能	備考
滑石 1.7 甘草 1.2	益元散	滑石, 甘草	清濕暑熱	
石膏 黃芩	白虎湯	石膏, 甘草	治陽明熱	白虎湯 去知母
桔梗 0.7 防風 川芎 當歸 赤芍 大黃 麻黃 薄荷 連翹	涼膈散	薄荷, 甘草, 桔梗, 連翹, 梔子, 大黃, 芒硝, 黃芩	治熱毒	
芒硝 0.45 荊芥 白朮	回春涼膈散	涼膈散, 當歸, 赤芍	治上焦熱	回春涼膈散 去熟地
梔子 0.35 薑五片	調胃承氣湯	大黃, 芒硝, 甘草	攻下	
	生料四物湯	當歸, 川芎, 芍藥, 黃芩, 薄荷, 防風	清熱解毒	生料四物湯 去熟地
	必用方甘桔湯	甘草, 桔梗, 荊芥, 防風, 薄荷, 黃芩	治風熱咽喉腫痛	必用方甘桔湯 去玄蔘
	荊芥湯	甘草, 桔梗, 荊芥	治咽喉失音	
	荊黃湯	荊芥, 大黃, 防風	治風熱眩暈	

3. 防風通聖散의 主治

『東醫寶鑑』에서 제시하고 있는 防風通聖散의 主治는 『宣明論方』을 인용하여 “治諸風熱,或中風不語暴瘖語聲不出,或洗頭風破傷風,諸般風搖,小兒驚

風積熱,或瘡疹黑陷將死,或傷寒疫厲不能辨明,或風熱瘡疥,或頭生白屑,或面鼻生紫赤風刺,癰疹肺風瘡,或大風癩疾,或風火鬱甚爲腹滿澀痛煩渴喘悶,或熱極生風爲舌強口噤筋惕肉瞤,或大小瘡腫惡毒,或熱結大小便

不通并解酒傷熱毒”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宣明論方』의 主治를 病因·病理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이를 『東醫寶鑑』의 主治와 비교해보면 <Table 3>과 같다.

또한, 『丹溪心法附餘』에서 인용하여 防風通聖散이 “治熱風燥三者之總劑也”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丹溪心法附餘』에 나온 “治熱風燥三者之總劑也”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風은 원래 熱에 근거하는

것으로 熱이 심해지면 風이 발생하고, 熱에 의해 발생한 風이 움직이면 燥가 생긴다. 따라서 風熱燥라는 세가지 病因이 사실은 熱이라는 한가지 원인이므로 이 세가지에 관련된 질환에 防風通聖散 한가지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⁵⁾. 즉, 防風通聖散이 熱의 病理로 인하여 熱, 風 혹은 燥의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熱에 관련된 처방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Table 3. 防風通聖散의 主治 분석

病因病理		증상	東醫寶鑑
風熱 風熱佛鬱, 風大, 生於熱, 以熱爲本而風爲標。言風者, 卽風熱病也。	風熱走注	疼痛麻痺者	諸風熱
	風氣壅滯	筋脈拘攣 肢體焦痿 頭目昏眩 腰脊強痛 耳鳴鼻塞 口苦舌乾 咽嗑不利 胸膈痞悶 欬嘔喘滿 涕唾稠黏	
腸胃燥熱	腸胃燥熱結便	溺淋閉 或夜臥寢汗 咬牙睡語 筋惕驚悸	
	腸胃佛鬱結	水液不能浸潤於周身 但爲小便多出者	
	濕熱內鬱	時有汗泄者	
	因亡津液而成燥	淋閉者	
	因腸胃燥鬱	水液不能宣行於外 反以停濕而泄	
燥濕往來	時結時泄者		
傷寒	疫癘而能辨者。熱甚佛結, 而反出不快者。	痘黑陷將死 大人小兒風熱瘡疥 及久不愈者 頭生屑 遍身黑黧 紫白斑駁 面鼻生紫赤風刺 癩疹 俗呼爲肺風者 成癘風 世傳爲大風疾者	或傷寒疫厲不能辨明 或風熱瘡疥 或瘡疹黑陷將死 或頭生白屑 或面鼻生紫赤風刺 癩疹肺風瘡 或大風癩疾
	調理傷寒 未發汗	頭項身體疼痛者 并兩感諸證	
産後 血液損虛	以致陰氣衰殘, 陽氣鬱甚	爲諸熱證 腹滿澀痛 煩渴喘悶 譫妄驚狂	風火鬱甚爲腹滿澀痛煩渴喘悶
	熱極生風, 而熱燥鬱	舌強口禁 筋惕肉瞤 一切風熱燥證 鬱而惡物不下 腹滿撮痛而昏者 惡物過多 而不吐者 不宜服之	熱極生風爲舌強口噤 筋惕肉瞤
表之陽和正氣與邪熱相合, 并入於裏陽極似陰虛氣久不已者 合則病作 離則病已。		戰煩渴者 表氣寒故戰 裏熱甚則渴	
腎水眞陰衰虛, 心火邪熱暴甚		僵仆 或卒中 久不語 或一切暴暗而不語 語不出聲 或暗風癘者 或洗頭風 或破傷 或中風 諸潮搯 并小兒諸疳積熱 或驚風積熱	中風不語暴瘖語聲不出 諸般風搯 小兒驚風 積熱
腸風		痔漏	

解酒	解酒過熱毒 兼解利諸邪所傷 及兼消除大小瘡及惡毒	大小瘡腫 惡毒 解酒傷熱毒
打撲	治墮馬打撲傷損疼痛	
熱結	大小便澀滯不通 或腰腹急痛 腹滿喘悶者	大小便不通

『宣明論方』에서는 風熱, 腸胃燥熱, 傷寒, 産後 血液損虛, 表之陽和正氣與邪熱相合, 腎水眞陰衰虛 心火邪熱暴甚, 腸風, 酒毒, 打撲 그리고 熱結 등의 病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의 치료를 主治로 제시 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宣明論方』의 主治

를 인용하였으나 이를 요약하고 일부를 삭제하여 防風通聖散의 치료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후대 醫家들은 防風通聖散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主治와 몇가지 다른 主治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防風通聖散의 추가된 主治

文獻	추가된 主治
儒門事親	留飲飧泄, 痰實嘔逆旋運, 小兒驚悸狂妄,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脅, 咽膈不通, 偏正頭痛
丹溪心法附餘	內煩, 懊憹, 不得眠, 煩渴, 頭昏, 唇焦, 咽燥, 喉痺, 目赤, 耳閉, 口舌生瘡, 咳嗽稠粘, 讖語狂妄, 便溺秘結
醫學正傳	痢後鶴膝風
醫學綱目	風熱瘡疥久不愈
醫學入門	春夏溫熱, 狀如傷寒, 表裏俱見者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儒門事親』에서는 風熱뿐만 아니라 風痰의 증상을 主治로 제시하고 있는데 痰熱로 인한 제반 증상을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丹溪心法附餘』에서는 “治風熱 諸證總劑”라고 하며 熱의 병증에 주로 사용한다고 하여 主治도 熱로 인한 제반 증상을 主治로서 추가하고 있다. 『醫學正傳』에서는 “痢後鶴膝風”을 主治로 추가하고, 『醫學綱目』에서는 “治風熱瘡疥久不愈”라 하며 燥의 병증을 위주로 삼았으며, 『醫學入門』에서는 “治春夏溫熱, 狀如傷寒, 表裏俱見者”라고 하여 溫熱病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4. 防風通聖散과 基本方들과의 主治비교

『宣明論方』에서는 防風通聖散의 主治를 복잡하게 제시하고 있고,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처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主治를 防風通聖散을 이루는 基本方에 따라 정리하면 主治를 이해하기가 쉽다.

防風通聖散을 구성하는 주요 基本方은 益元散²⁾, 涼膈散²⁾, 調胃承氣湯¹⁶⁾, 白虎湯¹⁶⁾, 四物湯¹⁵⁾ 이 다섯가지가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출전에서 의 주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益元散 治身熱, 吐利泄瀉, 腸癰, 下痢赤白, 癰閉淋痛, 石淋, 蕩胃中積聚寒熱, 心躁, 腹脹痛悶, 內傷陰痿, 五傷七情, 一切虛損, 驚悸, 健忘, 煩滿短氣, 藏傷咳嗽, 飲食不下, 肌肉疼痛. 並口瘡, 牙齒疳蝕. 百藥酒食邪毒, 中外諸邪所傷, 中暑, 傷寒, 疫癘, 饑飽勞損, 憂愁思慮, 恚怒瘟疫傳染, 並汗後遺熱勞復諸疾. 産後損氣血衰, 陰虛熱甚, 一切熱證, 兼吹奶乳癰.

涼膈散 治傷寒表不解, 半入於裏, 下證未全. 下後燥熱怫結於內, 煩心懊憹不得眠, 瘡癩發斑, 驚風, 熱極黑陷將死.

調胃承氣湯 傷寒脈浮, 自汗出, 小便數, 心煩, 微惡寒, 脚蹙急, 反與桂枝誤攻其表, 胃氣不和, 讖語者. 發汗後, 不惡寒, 但熱, 屬實者. 太陽病未解, 但陰脈

微者。傷寒十三日，過經譫語，自下利，脈和，內實者。太陽病，過經十餘日，心下溫溫欲吐，而胸中痛，大便反溇，腹微滿，鬱鬱微煩，先此時自極吐下者。陰陽病，不吐不下，心煩者。太陽病三日，發汗不解，蒸蒸發熱者。傷寒吐後，腹脹滿者。

白虎湯 傷寒，脈浮滑，此以表有熱，裏有熱。三陽合病，腹滿身重，難以轉側，嘔不仁而面垢，譫語遺尿，發汗則譫語，下之則額上生汗，手足厥冷，若自汗出者。傷寒，脈滑而厥者，裏有熱。

四物湯 治沖任虛損，月水不調，臍腹痛，崩中漏下，血瘦塊硬，發歇疼痛。妊娠宿冷，將理失宜，胎動不安，血下不止。及產後乘虛，風寒內搏，惡露不下，結

生痲聚，少腹堅痛，時作寒熱。

基本方的 主治와 防風通聖散의 主治를 비교해 보면 <Table 5>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많은 부분 基本方의 主治와 겹치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일부 主治도 基本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防風通聖散은 여러개의 基本方이 모여서 이루어진 처방으로 각각의 基本方에 잘맞는 증상이 따로 있다. 때문에 防風通聖散의 主治 중 특정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해당 증상의 基本方의 용량을 증대시키거나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Table 5. 防風通聖散의 主治와 基本方의 主治 비교

處方	主治의 비교
益元散	治身熱，吐利泄瀉， 腸癖 ，下痢赤白， 癰閉淋痛 ， 石淋 ，蕩胃中積聚寒熱，心躁， 腹脹痛悶 。內傷陰痿，五傷七情， 一切虛損 ，驚悸，健忘，煩滿短氣，藏傷咳嗽，飲食不下，肌肉疼痛。並口瘡，牙齒疳蝕。 百藥酒食邪毒 ， 中外諸邪所傷 ，中暑，傷寒，疫癘，饑飽勞損，憂愁思慮，恚怒瘟疫傳染，並汗後遺熱勞復諸疾。 產後損氣血衰 ， 陰虛熱甚 ， 一切熱證 ，兼吹奶乳癰。 胸膈痞悶，欬嘔喘滿。腸胃燥熱結便，溺淋閉，或因亡津液而成燥，淋閉者。或虛氣久不已者。或腸風痔漏。并解酒過熱毒，兼解利諸邪所傷。治產後血液損虛，以致陰氣衰殘，陽氣鬱甚，為諸熱證，腹滿澀痛，煩渴喘悶，譫妄驚狂。
涼膈散	治傷寒表不解，半入於裏，下證未全。 下後燥熱怫結於內，煩心懊憹不得眠， 瘡癬發斑 ， 驚風 ， 熱極黑陷將死 。 小兒諸疳積熱。或痘黑陷將死。遍身黑黧，紫白斑駁，或驚風積熱。調理傷寒未發汗，頭項身體疼痛者，并兩感諸證。
調胃承氣湯	傷寒脈浮， 自汗出 ， 小便數 ， 心煩 ， 微惡寒 ， 脚痠急 ，反與桂枝誤攻其表， 胃氣不和 ，譫語者。發汗後，不惡寒，但熱， 屬實者 。 太陽病未解，但陰脈微者 。 傷寒十三日，過經譫語，自下利，脈和， 內實者 。 太陽病，過經十餘日，心下溫溫欲吐，而胸中痛，大便反溇，腹微滿，鬱鬱微煩，先此時自極吐下者。陰陽病， 不吐不下 ， 心煩者 。太陽病三日，發汗不解，蒸蒸發熱者。傷寒吐後， 腹脹滿者 。 胸膈痞悶，欬嘔喘滿，涕唾稠黏，腸胃燥熱結便。或夜臥寢汗，咬牙睡語，筋惕驚悸，或腸胃怫鬱結，水液不能浸潤於周身，而但為小便多出者。調理傷寒未發汗，頭項身體疼痛者，并兩感諸證。或熱極生風，而熱燥鬱，舌強口禁，筋惕肉瞤，一切風熱燥證，鬱而惡物不下，腹滿撮痛而昏者。或因而熱結，大小便澀滯不通，或腰腹急痛，腹滿喘悶者。
白虎湯	傷寒，脈浮滑，此以 表有熱 ， 裏有熱 。三陽合病，腹滿身重，難以轉側，嘔不仁而面垢，譫語遺尿，發汗則譫語，下之則額上生汗，手足厥冷，若自汗出者。傷寒，脈滑而厥者，裏有熱。 或熱甚怫結，而反出不快者。
四物湯	治沖任虛損，月水不調，臍腹痛，崩中漏下，血瘦塊硬，發歇疼痛。妊娠宿冷，將理失宜，胎動不安，血下不止。及 產後乘虛 ， 風寒內搏 ，惡露不下，結生痲聚， 少腹堅痛 ，時作寒熱。 兼治產後血液損虛，以致陰氣衰殘，陽氣鬱甚，為諸熱證，腹滿澀痛，煩渴喘悶，譫妄驚狂。

5. 防風通聖散의 加味法

문헌에 나온 防風通聖散의 加味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宣明論方』에 처음 수록될 때의 加味는 痰으로 인하여 涎嗽할 경우에는 薑製半夏를 加하여 祛痰하도록 하고 있으며, 『醫學入門』에서는 加味로 『丹溪心法附餘』에 기재된 自利에는 大黃, 芒硝를 去하여 과다한 瀉下가 일어나는 것

을 방지하고, 自汗에는 麻黃을 去하여 과다한 發汗을 방지하는 것과 諸般 婦人科 疾患에는 熟地黃을 加하여 四物湯과 合方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方藥合編』에서는 癩疹, 瘙痒 등의 증상에 金銀花, 玄蔘, 蟬退를 加하여 清熱시키는 효능과 透疹시키는 효능을 더불어 강화시켰다.

Table 6. 防風通聖散의 加味

症狀	加味	作用	文獻
涎嗽	加 薑半夏	祛痰止咳	宣明論方
自利	去 大黃, 芒硝	과다한 攻下 방지	丹溪心法附餘
自汗	去 麻黃	과다한 發汗 방지	上同
婦人諸疾患	加 熟地黃	生血補血	醫學入門
隱疹, 瘙痒	加 金銀花, 玄蔘, 蟬退	涼血透疹	方藥合編

이외에도 『保命集』이 그 加味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防風通聖散의 加味를 이해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6. 防風通聖散의 최근 연구

防風通聖散은 風熱에 대한 처방이지만 최근에는 그 연구 및 활용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연구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防風通聖散의 主治인 風熱 혹은 中風에 관련되어, 中風의 원인이 되는 高血壓과 高脂血症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高血壓과 高脂血症에 좋은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19,20,21,27}. 防風通聖散은 심박수와 혈압을 강하시켜 高血壓에 도움이 되며, 혈중 Total-Cholesterol, LDL 그리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HDL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지혈증의 치료에 유의한 처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肥滿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비만세포의 생성이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었다^{21,26,27}. 다만, 노화^{21,22}나 일반적인 면역력의 증강^{23,25}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연구 결과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과다하게 생성된 NO에 의한 혈관 등의 손상이나 염증을 억제하거나 치유 할 수 있고^{28,29},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을 통해 아토피의 치료에 관해서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⁴.

防風通聖散을 복용시 肝이나 腎臟에 이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한 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肝이나 腎臟에 문제가 없으며^{19,20} 오히려 약간 좋아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Table 7. 防風通聖散에 관련된 논문의 분류

연구병증	논문 제목	연구 내용	치료효과
高血壓	防風通聖散加味の 高血壓 高脂血症에 대한 研究	혈압 및 심박수 감소	有效
	加味防風通聖散이 高Cholesterol 식이 白鼠의 高血壓에 미치는 영향		有效
高脂血症	防風通聖散加味の 高血壓 高脂血症에 대한 研究	T-cho, LDL, TG 감소, HDL 증가	有效
	防風通聖散이 肥滿誘導 白鼠의 高脂血症과 脂肪細胞에 미치는 영향		有效
	防風通聖散이 高脂肪飼料 食餌로 誘發된 肥滿생쥐에서 肥滿遺傳子 및 關聯因子에 미치는 影響		有效
肥滿	防風通聖散이 肥滿誘導 白鼠의 高脂血症과 脂肪細胞에 미치는 영향	체중감소, 비만세포 생성 억제	有效
	防風通聖散이 白鼠의 肥滿症 및 肥滿細胞에 미치는 영향		有效
	防風通聖散이 高脂肪飼料 食餌로 誘發된 肥滿생쥐에서 肥滿遺傳子 및 關聯因子에 미치는 影響		有效
老化	防風通聖散이 肥滿誘導 白鼠의 高脂血症과 脂肪細胞에 미치는 영향	프리라디칼 등의 생성 억제	有效
	加味防風通聖散의 美白效果에 관한 研究		無效
알러지 및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병태 모델에 대한 防風通聖散의 항알러지 효과	면역 기능 향상	無效
	防風通聖散 및 防風通聖散 加味方이 항 알레르기과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有效
	防風通聖散 추출물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의 Cytokine 및 NO 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	過NO에 의한 손상 억제	有效
	加味防風通聖散의 心血管系 및 神經系 細胞 防禦效果에 대한 연구	피부장벽의 회복	有效
기타	防風通聖散 煎湯液이 鎮痛, 抗痙攣 鎮靜 및 腸管 운동에 미치는 영향	鎮痛 및 鎮靜	有效
	防風通聖散加味の 高血壓 高脂血症에 대한 研究	肝과 腎臟 손상	없음
	加味防風通聖散이 高Cholesterol 식이 白鼠의 高血壓에 미치는 영향		없음

III. 考 察

防風通聖散은 1172년 劉完素가 『宣明論方』에 처음 등재한 처방으로 風熱에 의해 생기는 제반증상과 內傷七情에 의해 熱이鬱滯되어 유발된 제반증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立方되었는데 이후 많은 醫家들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사용되었다.

防風通聖散의 구성은 滑石 三兩 甘草 二兩 石

膏 黃芩 桔梗 各 一兩 防風 川芎 當歸 赤芍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 各 半兩 荊芥 白朮 山梔 二錢半을 한꺼번에 가루내어 보관하다가 소량으로 나누어 生薑과 더불어 끓여 복용하는 구성이었으나, 醫學入門에 이르러 이를 20분의 1로 나누어 첩단위로 바꾸었으며, 『東醫寶鑑』에 기재될 때는 첩단위의 용량에 각각 2푼씩을 더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구성으로 완성되었다.

防風通聖散은 濕熱을 제거하고 健脾시키는 益元散, 中焦의 熱을 제거하는 白虎湯, 上焦의 熱을 제거하고 이에 의해 유발된 燥의 病理를 치유하는 回春涼膈散, 胃中燥熱을 제거하고 瀉下시키는 調胃承氣湯 그리고 補血하면서 血虛로 인한 熱症을 다스리는 生料四物湯의 다섯가지 주요 基本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主治도 이 다섯가지 주요 基本方의 主治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다섯가지 基本方 이외에도 必用方甘桔湯, 荊芥湯 그리고 荊黃湯등이 각각 咽喉腫痛, 失音 그리고 眩暈 등의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보조되어 있고, 더불어 麻黃, 防風, 荊芥로 風熱을 피부를 통해 發散시키고, 攻下로 인한 과다한 脾氣損傷을 막기 위해 白朮이 配伍되어 있다.

防風通聖散은 風熱, 腸胃燥熱, 傷寒, 産後 血液損虛, 表之陽和正氣與邪熱相合, 腎水眞陰衰虛心火邪熱暴甚, 腸風, 酒毒, 打撲 그리고 熱結 등의 病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의 치료를 주치로 하고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이 중에서 風熱, 傷寒, 産後 血液損虛, 中風, 酒毒 그리고 熱結 등의 病因에 의해 유발된 병증을 치유하는 처방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후대의 의가들에 의해 防風通聖散의 기존 主治에 더불어 痰飲, 鬱火, 鶴膝風, 오래된 瘡疥 그리고 溫熱病 등의 主治도 추가되었다.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防風通聖散은 심박수와 혈압을 강하시켜 高血壓에 도움이 되며, 혈중 Total-Cholesterol, LDL 그리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HDL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지혈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비만세포의 생성이 억제되므로 肥滿을 치유할 수 있고, 過다 생성된 NO에 의한 손상을 줄이거나 치료해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1. 防風通聖散의 出典은 『宣明論方』이며, 그 구성은 변화가 없다. 다만 약물의 用量에 있어 劑단위로 만들어 나누어 끓여 복용하던 것을 『醫學入門』에 이르러 劑단위 구성으로 바꾸었으며 『東醫寶鑑』에서는 『醫學入門』의 약물 用量에 각 2푼씩을 加하고 生강도 3편에서 5편으로 올렸다.
2. 防風通聖散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방은 六一散, 白虎湯, 回春涼膈散, 調胃承氣湯, 生料四物湯이며, 必用方甘桔湯, 荊芥湯, 荊黃湯등 증상에 대한 처방과 麻黃, 防風, 荊芥등의 發散之劑와 脾氣를 손상되지 않게 도와주는 白朮이 보조를 맞추어 防風通聖散을 구성하고 있다.
3. 防風通聖散은 風熱, 腸胃燥熱, 傷寒, 産後 血液損虛, 表之陽和正氣與邪熱相合, 腎水眞陰衰虛心火邪熱暴甚, 腸風, 酒毒, 打撲 그리고 熱結 등의 病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의 치료를 主治로 하고 있으며, 예서는 이를 요약하여 主治로 제시하고 있다.
4. 防風通聖散은 高血壓, 高脂血症에 효과가 있으며, 肥滿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參考文獻

1. 南京中醫學院. 中醫方劑大辭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2:4권:924-6.
2. 劉完素. 河間醫集.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8:230-2.
3. 劉完素. 病機氣宜保命集. 서울:木杓土. 2000:122-5.
4. 張元素. 子和醫集.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281.
5. 方廣.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大星文化社. 1993 :60, 61, 98, 104, 105, 385.

6. 虞搏. 醫學正傳. 서울:成輔社. 1986:2, 33.
7. 樓英. 醫學綱目. 서울:정문사. 1984:37, 338.
8. 李槌. 編註醫學入門. 서울:法人文化社. 2006:357.
9.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法人文化社. 1999:505, 536, 591, 593, 645, 731, 733, 797, 922, 924, 945, 953, 960, 962, 966, 967, 985, 988, 1020, 1096, 1106, 1120, 1121, 1137, 1387, 1413, 1464, 1466, 1468, 1469, 1473, 1495, 1717.
10.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成輔社. 2000:208, 209.
11.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醫聖堂. 2002 :782, 880, 881.
12. 尹用甲. 新東醫方劑2223. 서울:鼎談, 2006:680.
13.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南山堂.
14. 辛民教. 原色臨床本草學. 서울:南山堂. 1986.
15.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臺灣:旋風出版社. 1975 :卷9:4.
16. 孟雄在. 傷寒論概說. 益山:圓光大學校 出版局. 1996.
17. 조대진, 박찬국.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著者に 대한 考察. 원전의학학회지. 1998:12.
18. 이영우. 防風通聖散 煎湯液이 鎮痛, 抗痙攣 鎮靜 및 腸管 운동에 미치는 영향. 방제학회지. 1990.
19. 강경남. 防風通聖散加味の 高血壓 高脂血症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6.
20. 김종완. 加味防風通聖散이 고Cholesterol 식이 白鼠의 高血壓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2006.
21. 차민경. 防風通聖散이 肥滿誘導 白鼠의 高脂血症과 脂肪細胞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6.
22. 이승은. 加味防風通聖散의 美白效果에 관한 研究. 大韓眼耳鼻咽喉皮膚科學會誌. 2004:04.
23. 김희정. 알러지성 비염 병태 모델에 대한 防風通聖散의 항알러지 효과. 大韓眼耳鼻咽喉皮膚科學會誌. 2006:04.
24. 손정민. 防風通聖散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의 피부 손상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25. 이동현. 防風通聖散 및 防風通聖散 加味方이 항알레르기 및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90.
26. 신병철. 防風通聖散이 白鼠의 肥滿症 및 肥滿細胞에 미치는 영향.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7:06.
27. 황상준. 防風通聖散이 高脂肪飼料 食餌로 誘發된 肥滿생쥐에서 肥滿遺傳子 및 關聯因子에 미치는 影響. 대전대학교 박사논문. 2005.
28. 정성엽. 防風通聖散 추출물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의 Cytokine 및 NO 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 석사논문. 2006.
29. 나영철. 加味防風通聖散의 心血管系 및 神經系細胞 防禦效果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박사논문. 2003.